

전남농기원-관세청, 녹차 등 차산업 보호 '맞손'

객관적 분류기준 마련 관세신고 오류 등 제도 정비 기술 자문·분쟁 대응...공동 연구·협력사업 발굴도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관세청과 협력해 국내 차 생산능률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과 차 산업 발전과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녹차와 발효차 간 관세율 차이로 발생하는 품목분류 신고 오류와 분쟁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학술 협력을 통해 객관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차 품목분류와 관련한 기술·학술 자문, 분쟁 대응 협력, 수출입 동향과 기술 정보 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현재 녹차에는 513.6%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홍차·백차·우롱차 등 발효차는 4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차이로 녹차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이 다른 차류로 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과학적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전남농업기술원 차 산업 연구소와 협력해 차류의 산화·발효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품목분류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신제품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가공·성분 분석, 기능성 평가, 품질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내 공공 차 전문 연구 기관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수입 차류의 품목분류 오류를 줄이고 국내 생산 농가와 관련 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관세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분석기법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차 산업의 제도적 기반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과 차 산업 발전과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전남농업기술원 차 산업 연구소와 협력해 차류의 산화·발효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품목분류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전남농업기술원 차 산업 연구소와 협력해 차류의 산화·발효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품목분류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전남농업기술원 차 산업 연구소와 협력해 차류의 산화·발효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품목분류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임대차 일방 해지 임차농에 대체농지 우선 공급

농어촌공사, 농지 전수조사 맞춰 보호장치 마련 디지털 원스톱서비스로 임대수탁사업 편의 개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 전수조사 예고령에 따라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전수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공사는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농 보호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때도 기존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간 공사

를 통한 임대차 계약 없이 영농해 온 임차인이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와 함께 농지임대수탁 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이를 통해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지 소유주와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농지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 관할 자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농지 위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어디서든 방문 없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이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변경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전화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 다음 날 관련 정보를 지방정부에 전송

해 지방정부가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소유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공사가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임대수탁사업에 통해 농지를 임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 소유주가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1수탁 기간 중 농지처분 면적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매년 안정적인 임대료 수령 △농지 소유주가 농업인일 경우 위탁 시 임대수탁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과는 “앞으로도 농지은행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고, 효율적 농지이용과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니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완도 전복, 中·日 동시 수출...전남형 스타기업 결실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수산지원사업 가시화...14.4t 선적 경쟁력 입증

전남 해양수산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육성된 지역 기업이 중국과 일본 시장 동시 진출에 성공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사업 수혜기업인 완도망영어조합법인이 14일 완도군 법인 부지에서 ‘완도 전복 중국·일본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물량은 완도전복과 냉동전복 등 총 14.4t 규모로, 중국 8.4t과 일본 6t이 포함됐다. 금액으로는 약 2억원 수준이다.

청정 해역에서 생산된 완도 전복이 까다로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완도망영어조합법인은 올해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지난 3월부터 마케팅과 수출 물류비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첫 해외 선적까지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수출 선적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지역 수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지역 수산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전남형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목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주관하고 목포수산물품질지원센터가 참여해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 기술 개발, 투자 유치,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챗GPT로 온라인 홍보문 만들고 카드뉴스 똑딱”

전남신용보증재단·광양시 추진 소상공인 경영혁신 교육 ‘호응’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광양시와 함께 추진한 ‘2026년 광양시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AI 특화 실습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은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지난 달 28일부터 29일과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광양시 소재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등 32명이 수료했다.

광양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광양시가 전남신보에 위탁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이다. 재단은 그동안 광양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무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올해 사업은 AI 활용 역량을 핵심으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한 점이 특징이다.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지역소비 위축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AI 대전환’에 맞췄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보다 실제 사업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1일차에는 챗GPT와 미러캔버스를 활용해 정보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광양시와 함께 추진한 ‘2026년 광양시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AI 특화 실습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카드뉴스·홍보 이미지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2일차에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블로그 기반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실무 교육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AI 도구 사용이 낮은 소상공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실습과 현장 피드백을 강화해 수료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각자의 사업장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 결과물을 직접 완성하고, 온라인 마케팅 운영 방향까지 점검했다.

전남신보는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1대 1 컨

문가 컨설팅 등 심화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사업장별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마케팅, 온라인 판로, 경영개선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강근 이사장은 “재단은 매년 광양시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AI 중심의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한 만큼,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전남도, 유망 중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운다

18일까지 모집...자금·판로·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

전남도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2026년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유망 중소기업 지정 제도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최근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을 기록한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선정은 재무 건전성, 기술 경쟁력, 성장 가능성, 고용 창출 성과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용자 한도 상향 및 이자 지원 우대 △판로 확대·수출 마케팅 등 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3년간 전남도와 시군 지방세 세부조사 면제 등이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 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유망 중소기업 선정은 지역 기업의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과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선정 기업을 도 대표 유망기업으로 관리하고, 향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방안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협상호금융, ‘NH복서포터즈’ 5기 모집

전국 대학생 50명 선발

농협상호금융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갈 대학생 홍보단 ‘NH복서포터즈’ 5기 참가자 50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5기를 맞은 NH복서포터즈는 2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대학생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NH복뱅크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고, 금융교육 등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하며 농협상호금융의 브랜드 가치와 금융서비스를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알리

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기준 국내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선발된 서포터즈는 다음달부터 11월 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원은 NH복서포터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농협상호금융은 우수 활동자에게 회장 명의 대외표창과 팀별 시상금, 개인별 장학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제주 워크숍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윤성훈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NH복서포터즈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통해 농협을 친근하게 알리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